'호우시절'

로맨틱 코미디 VS 멜로물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물러간 가을, 각양각색의 멜로 영화가 찾아온다.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 산드라 블록이 돌아왔고, 멋진 남자 정우성 역시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으로 관객들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가을 극장가 '눈물·감동' 속으로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가을, 첫 포문을 연 '프로포즈'는 뉴욕의 유명 편집장이 추방 위기에 몰리자 남자 비서와 계약 연애를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을 통해 깊은 인상을 남겼던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맡았다.

17일 개봉 예정인 'S러버'는 할리우드 스타 에시튼 커쳐의 출연으로 여성팬들을 설레게 하는 작품이다. 솔직한 욕망을 표현하는 남자와 두 여자의 밀고 당기는 연애 과정을 독특한 시각으로 그린 영화로 앤 헤이시와 마가리타 레비에바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프렌즈'의 제니퍼 애니스톤과 스티븐 잡, 우디 헤릴슨이 주연을 맡은 '러브 매니지먼트'는 30대 싱글녀의 사랑 찾기다. 인생의 모든 걸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관리하는 30대 싱글녀 수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이크를 만나게 되지만 연애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허둥대며 새로운 사랑에 눈 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밖에 미국 여자와 영국 귀족의 연애담을 그린 제시카 비엘·벤 반스 주연의 '이지 버츄', 여행을 떠난 네 쌍의 연인이 커플 치료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담은 '대화가 필요해', '300'의 제라드 버틀러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유쾌한 로맨스 영화 '어글리 트루스' 등도 개봉대기중이다.

▲각양각색 한국 사랑 영화

매력남 정우성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호우시절'은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로 한국 멜로 영화의 새장을 연 허진호 감독의 신작이다.

'호우시절'은 대학시절 인연을 맺은 두 남녀가 오랜 시간 후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동하는 중국 출장길에 우연히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미국 유학 시절 친구 메이를 만난다. 낯설음도 잠시, 두 사람은 금세 미국 유학시절로 돌아가지만 달콤한 기억을 떠올리는 동하와 달리 메이는 동하와 함께 한 추억을 기억하지 못한다.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 중 한명인 고원원이 정우성의 연인으로 출연한다.

추석 시즌에 개봉하는 '내사랑 내곁에'는 '너는 내운명'으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박진표 감독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루게릭병에 걸린 한 남자와 그를 곁에서 지키는 한 여자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를 그린 '내 사랑 내곁에'는 20kg 감량한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김명민과 하지원이 주연을 맡았다.

유지태가 1인 2역을 맡은 '비밀애'는 금지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남편의 쌍둥이 동생을 사랑하게 된 여자와, 형의 여자를 사랑하게 되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올드보이'에서 유지태와 호흡을 맞췄던 윤진서가 여주인공으로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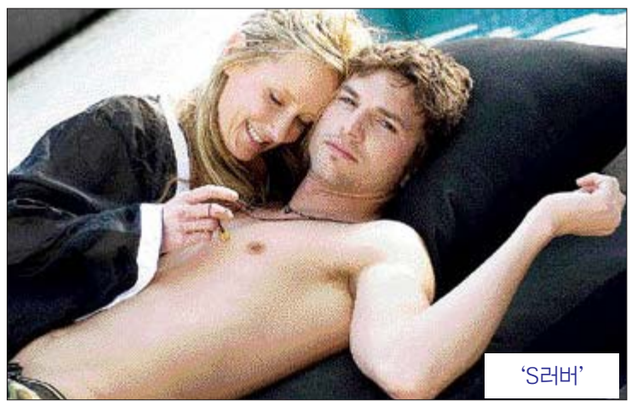
그밖에 10년 동안 사귄 남친을 여자도 아닌 완전 잘난 훈남에게 빼앗기게 되는 한 여자의 아찔한 실연대처법을 다룬 영화 '헬로우 마이 러브'에는 '킹콩을 들다'의 조안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밀애'

비밀애 남편의 쌍둥이 동생을 사랑하게 된 여자

호우시절 한국 멜로의 새 장연 허진호 감독 신작


'S러버'

'러브 매니지먼트'

여친 몰래 알고 싶은 아찔한 작업 테크닉 **S러버**

사랑 빼곤 완벽한 그녀에게 찾아온 로맨스 **러브…**

새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

2년전 이태원에서 실제 일어났던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다.

1997년 4월 이태원 한복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이 잔인하게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된다.

사건 현장에 있던 10대 한국계 미국인 피어슨과 알렉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처음에는 피어슨이 범인으로 지목하지만 박대식 검사는 조사를 계속할수록 알렉스가 진범이라고 확신한다.

장근석·정진영 주연
실제 살인사건 모티브
'진실 게임' 공방 치열

하지만 부유한 알렉스의 아버지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아들의 무죄를 증명하려 하고 피어슨과 알렉스의 진술은 계속 엇갈리는데….

연기파 배우 정진영이 박검사로 출연하며 오광록이 변호사 역을 맡았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영화 '즐거운 인생'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장근석이 알렉스 역을 맡았으며 연기파 조연 신승환이 피어슨으로 출연한다.

'오, 꿈의 나라', '선택'의 홍기선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